

개성 넘치는 베네주엘라 비르투오소의 첫 독주회 세르히오 티엠포



아르헨티나의 벨손 피르너와 함께 현시대 남미 피아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베네주엘라의 비르투오소 세르히오 티엠포가 내한 리사이틀을 준비한다. 첼리스트 장한나와 마이스키의 반주자로 동행하고, 2008년에는 서울시향과 슈만 〈협주곡〉으로 성공적인 협연 무대를 통해 한국 음악 애호가들을 만났지만 이번 무대는 한국에서 펼치는 그의 첫 독주회이기에 의미가 배가된다.

티엠포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 쇼팽 〈에튀드, Op.10, Op.25〉 전곡·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 중 3곡·베토벤 〈소나타 14번, Op.27-2〉 ‘월광’ 등의 정통 레퍼토리로 진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작곡가 히나스테라의 〈3개의 아르헨티나 춤곡〉으로 남미 특유의 정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1972년 베네주엘라의 카라가스에서 출생한 세르히오 티엠포는 자신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무리하게 커리어를 구축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피아니스트이다. 2세 때 피아노 교사였던 어머니 릴 티엠포와 함께 피아노 공부를 시작 해 3세 때 공식 데뷔를 가졌고 4세 때는 아르헨티나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신동의 면모를 드러낸 그는, 군부 독재를 피해 런던으로 거처를 옮긴 뒤 테사 니콜슨·마리아 쿠르치오와 함께 공부하면서 한층 실력을 높여 7세 때에는 런던과 프랑스의 망통 페스티벌에서 독주회를 열 정도로 조기에

재능을 드러냈다. 영국과 파리·브뤼셀에서 공부하며 실력을 증진하던 그가 지표를 찾게된 것은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만나면서부터. 그녀는 그의 종종 집에 방문했기에 처음에는 단순히 ‘마르타 이즘파’라고 생각했다는 티엠포는 그녀의 프로코피예프 〈협주곡 3번〉을 듣고 매료되었고, 이후 그녀를 정식으로 사사하진 않았지만 〈밤의 가스파르〉를 6시간에 걸쳐 서로 연주하며 레슨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모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피아니스트들이 거쳐가는 전형적인 행로를 밟지 않았다.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8세 때 참가한 런던의 얼링 뮤직 페스티벌 산하의 콩쿠르에서 네 개의 1등 상과 함께 가장 재능 있는 참가자에게 주는 특별상도 받았지만, ‘음악가들을 경주마처럼 비교하는 것’이 매우 비예술적이라고 느껴 이후 컴퍼티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이런 점은 그를 개성 넘치고 특별한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규 음악 교육과 콩쿠르 대신 그는 콘서트 연주에 전념, 14세 때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보 홀에서 주최한 ‘그레이트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출연한 이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그의 실력을 알아차린 유럽 주요 페스티벌의 단골 연주자가 되었다. 루가노에서 열리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에 매년 출연 중인 그는 뮌헨의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친구들·잘츠부르크 페스티벌·베르가모의 ‘미켈란젤리 페

스티벌’ 등에서도 연주 솜씨를 드러냈다. 티엠포는 실내악에 큰 비중을 두고 활약해왔지만 독주 및 크리스토프 에센바흐·레너드 슬래트킨·바실리 시나이츠키·샤를르 뤼트와·알렉산더 드리트리예프·마이크 킬슨 토마스 등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끄는 시카고 심포니·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몬트리올 심포니·로테르담 필하모닉·모스크바 솔로이스츠·LA 필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도 호평리에 펼쳐왔으며, 다채로운 활동은 포상으로도 이어져 1986년 벨기에의 알렉스 드 브리(Alex De Vries)상, 2000년 독일의 다비도프상을 받기에 이른다. 2006년,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라벨 〈밤의 가스파르〉·쇼팽 〈녹턴〉 등의 레퍼토리로 EMI에서 첫 독주 음반을 공개해 개성있는 솜씨로 상찬 받은 이래로 그는 녹음 작업도 진행 중이다.

티엠포는 전형적인 것에서 탈피해 꾸준하고 끈기 있게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꿔왔다. 이번 내한 독주회는 그가 구축한 특유의 아우라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 | 윤석진**

세르히오 티엠포 피아노 독주회

10월 10일 20시 LG아트센터

10월 11일 19시 30분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Program 쇼팽 〈에튀드〉·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베토벤 〈소나타 14번, Op.27-2〉 ‘월광’ 외